

주장자 따라...

16 만공 스님의 '또하나의 너'



조태호

만공 스님(1871~1946): 전북 태인생. 17세에 서산 천장사에서 득도. 경허선사를 지극히 모시며 수행정진해 법을 이었다. 수덕사·정혜사·경성암을 중창 선공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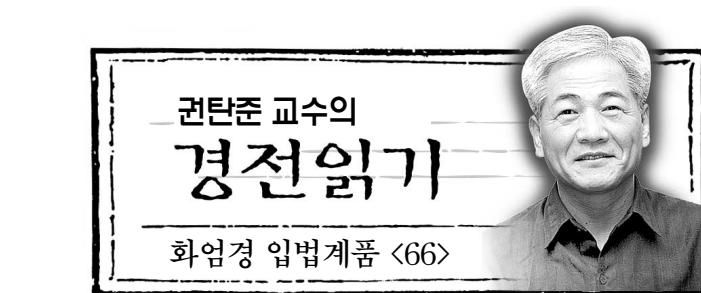
선재동자는 묘월장자로부터 남쪽의 출생(出生)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이길'이 없는 군대(無勝軍)라고 하는 장자를 찾아가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뒤는 법을 물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 성에 가서 장자가 있는 곳에 이르러 예배드리고 나서 가르침을 청하자, 장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다함없는 형상(無盡相)'이다. 나는 이 보살의 해탈을 증득하였으므로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옵고 무진장(無盡藏)을 얻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다함없는 형상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이 한량없는 지혜와 결집하는 번재를 얻은 것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무승군장자가 얻고 있는 '다함없는 형상(無盡相)'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은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여러가지 공덕의 모습(德相)을 무궁무진으로 출생함을 밝힌 것이다. 장자가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이 '출생'인 것도 그가 언제나 모든 법과 온갖 공덕의 행을 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장자의 이름이 '이길'이 없는 군대(無勝軍)인 것은 그가 지는 공덕의 힘이 출생하여 무명·고만·삿된 견해 등의 온갖 좋지 못한 마군(魔軍)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장자가 얻고 있는 해탈이 '다함없는 형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보살행을 뒤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한없는 깨달음을 다양하게 얻음을 나타낸다. '다함없는 형상의 해



무승군 장자의 법문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깨달음 성취 열가지 선법 행하고 악법 멀리해 해탈

탈에 의해서 한량없는 부처님을 뵈는'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승군장자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이 특정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거나 특별한 환경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해탈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자가 설하고 있는 '무진상해탈'의 법문은 너무나 간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아주 간략한 법문으로 되어 있는 60권 화엄경이나 80권 화엄경과는 달리 40권 화엄경에는 이 해탈을 얻는 법이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선남자여, 보살이 열 가지 법을 뒤으면 이런 해탈문을 증득할 수 있다. 하나는 한가한 곳에 있으면서 다섯 가지 욕

지 않는 까닭이다. 열은 외도들의 삿된 언론을 쫓는 것이니 잘못된 소견으로 중생을 해롭히지 말도록 하는 것이다. 보살이 만일 부지런히 뒤아서 이 열 가지 법을 구족하면, 이러한 해탈문에 들어가며, 수많은 백천 법문에 자재하게 들고 나고 하리라.

선남자여, 보살이 또 열가지 법을 멀리 여의면 이 해탈을 얻을 것이니, 하나는 계율을 범한 모든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둘은 바른 소견을 파괴한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셋은 바른 위의를 깨뜨린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넷은 바르게 사는 생명을 깨뜨린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다섯은 세간 화설을 말하기 좋아하는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여섯은 게으른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일곱은 모든 욕력에 탐착하는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여덟은 흰 옷 입은 이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아홉은 삿된 복을 뒤기를 좋아하고 바른 행에 머물지 않는 이로써, 출가하였거나 집에 살거나 하는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열은 번뇌가 많고 몸이 게을러서 권고하여도 고칠 수 없는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니라."

위의 법문을 통해서 대승 보살의 해탈을 얻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위의 경문에 밝혀져 있는대로 보살의 해탈은 생활 속에서 선법을 부지런히 행하고 악법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진장의 공덕을 얻게 되고, 생사의 바다 속에서 우리들을 일깨우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부처님을 항상 만나게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네티즌 교리문답

지관(止觀)이란 무엇인가

답1: 불교 책에서 '지관(止觀하라)'란 말이 자주 보이는데, '지관'이란 말의 뜻 풀이 좀 부탁드립니다. (D '초발심자')

답2: '지(止)'는 사마타, 즉 삼매(三昧)를 뜻하고 '관(觀)'은 위빠사나를 의미합니다. 사마타는 육근(六根)에 끌리지 않고 마음이 완전히 텅비어 고요한 상태인데, 이 경지에서 관(觀)을 하면 물질세계의 본질을 볼 수 있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D '세등')

답3: '지(止)'는 마음이 멈춘 상태를 말하며 '관(觀)'이란 마음이 멈춘 상태에 일체를 관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상에 마음이 끌려가 버려 마음이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D '주지사')

답4: '지'란 본성의 공함에 의지가 두어져서 일체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이며, '관'이란 중심을 통해 근본과 경계를 비추보는 것입니다. (D '구산')

답5: 지관은 정과 혜를 함께 닦는 이법(二法)으로 천태종에서 강조하는 수행법입니다. '지'는 모든 번뇌를 그칩시오. '관'은 자기의 천진심(天真心)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산란한 온갖 망념을 그치고 고요하고 맑은 슬기로운 방법을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D '법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40

불립문자(不立文字)-13

앞의 글에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나오는 인연견언(因言連言)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직역하자면 말로써 말을 여의는 뜻이다. 말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말을 넘어서는 이야기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말을 한다는 뜻이다. 즉, 일상적인 분별의 구도를 넘어선 세상의 통합성, 그 불이적(不二)의 진상은 언어로는 도저히 온전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길이 없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주제이지만, 그게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하거나 어렵 수 없이 언어에 의지한다는 뜻이다. 또는, 일단 말을 제대로 잘 알아듣고 나아가 마침내는 그 말이 다 답을 수 없었던 언어 너머의 메시지가 파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하는 말은 그 말 자체의 뜻을 내세우는 그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인연견언의 말은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을 이미 전제하고 풀어내는 말이다. 그 말을 꿰뚫을 수 있어야만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한 셈이 된다.

흔히 듣는 손가락과 달의 이야기가 바로 이를 위한 비유이다. 저기 달 좀 보라는 뜻으로 치켜세우는 손가락은 손가락 자체를 내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손가락을 세운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손가락에서 시선을 거두어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달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달을 본 사람에게는 손가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손가락의 주인도 손가락을 거두고, 달을 보는 사람도 더 이상 손가락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면에, 옆 사람이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달 좀 보라' 하니 그 손가락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 이걸 달이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다.

실제로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되겠지만, 집개손가락을 세워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몸짓의 의도를 모르는 어린아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바로 그런 어린 아이들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보면, 말과 글을 대할 때 그 어법과 문법의 틀 안에서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말이나 글 그 자체를 붙들고 늘어지며 그에 얽매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의 경이나 논서를 보면 기껏 심각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놓고 나서 나중에 앞에 한 말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앞에서 한 이야기가 다 헛소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학교 화장실에서 본 낙서에 이런 것이 있었다. '차에 명제는 참이다'라고 써놓고는, 그 아래에다가는 '위의 명제'는 거짓이다'라고 써놓았다. 아마 논리학 강의에서 모순술에 관해서 배우고는 재미있어서 그런 낙서를 해놓은 모양이다. 불교의 경론에서 자기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도 마치 그런 양상이다. 그 낙서의 두 명제를 모두 참이라 여기고 그 두 문구 사이에서만 논길과 의식이 오가다보면 왕복에 끝이 없다. 그런 낙서를 해놓은 의도와 정황을 짐작하기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그냥 피식 웃고 논길을 거두어버린다. 종교언어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풀어내 놓는 그 체험의 경지를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맴도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상식퍼즐

가로

1	2	3	4	5	6
7			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정답은 26면에

1. 불법(佛法)의 참다운 이치를 깨닫는 지혜 5. 실제의 기능이나 기술 7. 회사의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 8.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태자로 있을 때 동서남북의 성문을 나서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한 일 9. 화엄사 경내의 전각으로 국보 67호 11. 법왕(法王)과 더불어 불법을 지키는 신 13. 사찰에서 독성(獨聖)을 모셔둔 전각 14. 임금 이기게하는 궁전 15. 학생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사람 16. 산사에 들어서면 맨 먼저 만나게 되는 문 9. 한결같은 한자성어 21. 하늘, 땅, 사람이 이루는 말 22. 아무리 구해도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공허의 다른 이름 23. 자연의 경치 25. 육지의 내부에 위치하여, 못이나 늪보다 넓고 깊게 물이 괴어있는 곳.